

## 국제갤러리, 칸디다 회퍼(Candida Höfer) 개인전 《Spaces of Enlightenment》 개최

기자간담회: 2018년 7월 26일(목) 오전 11시 국제갤러리 2관

전시기간: 2018년 7월 26일(목) - 8월 26일(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2관(K2)

국제갤러리는 현대 사진의 지평을 넓혀온 세계적인 작가 칸디다 회퍼(Candida Höfer)의 개인전 《Spaces of Enlightenment》를 7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개최한다. 국내에서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지난 50여 년간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공간과 인간을 사유해 온 칸디다 회퍼의 작품들 중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근래까지 촬영된 '공연장(Theatre, Opera House)', '도서관(Library)', '미술관(Museum, Collection)' 등 특정 기관의 공간에 주목한다.

이번 《Spaces of Enlightenment》전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의 내부 공간은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동시에 모두 인간의 '깨달음(Enlightenment)'을 가능하게 한 장소다. 소위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으로 알려진 "Enlightenment"은 인간을 포함해 자연, 사회, 정치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보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근대 철학, 정치, 문학, 건축, 예술 등 사회 전반에 폭 넓은 영향을 미친 계몽 사상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힘, 즉 이성의 빛에서 출발한다. 'Enlightened(깨우친, 계몽된, 개화된)'라는 단어의 의미와 더불어 불교의 돈오(頓悟)로 해석되거나 빛으로 도상화되기도 하는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에서 비롯되기 보다 연역적 사고와 경험을 통한 인식의 변화, 일종의 '깨어나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 속 공간은 사유의 단초를 제공하고 인식의 변화를 일깨운 사회적 장소들로 읽힌다.

국제갤러리 K2의 1층은 뒤셀도르프 시립극장(Düsseldorf Schauspielhaus)을 시작으로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르헨티나의 극장과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 공간을 담은 작품으로 구성된다. 이들 공간은 다양한 건축 양식은 물론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명문가의 사유지에 마련되었던 개인 극장(Teatro di Villa Aldrovandi Mazzacorati, Bologna), 닫힌 공간을 더 넓고 깊게 보이도록 원근법을 이용한 설계 방식(Teatro Olimpico Vicenza), 공공 기금을 통해 건립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극장(Teatro Comunale di Bologna)은 이전 왕족과 귀족에 국한되었던 음악과 청중의 존재가 계몽시대 중간계급의 부상과 맞물려 확대되고, 공적 기관의 설립 및 대중화로 이어진 일련의 역사를 대변한다. 귀족들이 독점하다시피 한 박스석, 일반 청중들이 대부분 서서 관람하던 파르테르(오늘날의 스톱석)의 구성과 비교해, 이후 파르테르에 의자가 설치되고 나아가 공간의 계급적 분할이 사라지는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 하다.

K2 2 층에서는 인간의 지적, 심미적 추구의 장으로 한데 묶일 수 있는 도서관과 미술관의 공간들이 소개된다. 중세 수도원 내 바로크 양식의 도서관, 프랑스국립도서관, 뒤셀도르프 아카데미 내 복도에 놓인 작은 서가, 빌라 보르헤스, 에르미타주미술관과 올리아 슈토세크 컬렉션 등 작품 속 내부 공간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 곳에 머물고 스쳐간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인문학적 장소로서의 역할을 획득했으며, 장서와 미술품, 벽화, 가구 등의 구성과 맥락으로 고유한 개성을 부여 받아왔다. 특권계층을 위한 곳에서 민주화된 문화의 장소로 바뀌게 된 이러한 공간들은 무수히 많은 예술가, 역사학자, 철학자들이 청중, 관객과 교류하였고 이 과정에서 생긴 인식의 변화는 깨달음으로, 더 나아가 예술 창작의 위대한 순간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칸디다 회퍼는 이 모든 것이 축적된 공간들을 그만의 긴 기다림과 호흡으로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낸다.

칸디다 회퍼의 사진 속 공간들은 인간의 자취를 담고 있다. 영국 리버풀의 도시 풍경(Liverpool, 1968), 유럽 도처에 핀볼 기계가 놓인 공간의 모습(Flipper, 1973)과 1970년대 후반까지 진행된 독일 내 터키 이주민들(Turks in Germany), 그리고 자국 내의 터키인들(Turks in Turkey) 등 시기상 초기작으로 분류되는 작품들은 공간과 인간의 물리적,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방증한다. 작가는 1980년대부터 동물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공적 공간'으로 시선을 옮기는데, 이는 인간의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산물로 존재하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다. 작가는 이러한 공간과 인간, 그리고 특정 피사체와 다양한 지리적, 공간적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뷰파인더에 담아낸다. 이 과정에서 서서히 부재하게 된 인간의 존재는 공간이란 본래 인간에 의해 기능하는 곳이므로 굳이 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였다.

뒤셀도르프 아카데미 재학 시절 스승의 권유로 대형 카메라를 시도했던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5mm 카메라(compact camera)로 촬영된 초기 작업들은 대부분 작은 사이즈로만 인화가 가능하였다. 1990년대 말, 삼각대와 6x6cm 카메라, 이후 9x12cm 네거티브를 사용하면서부터 가능해진 대형 프린트는 공간에 배치된 사물들의 배열 방식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이로 인해 관객들은 이미지 상의 공간 내 디테일들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이내 뚜렷한 개별성을 지닌 모든 구성 요소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기호적 장치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장소를 이루고 있음을 지각하게 된다.

칸디다 회퍼는 주어진 시간 내에 장소 자체에 깃든 자연광과 인공 조명으로만 작업하며 일체의 추가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작가는 공간을 탐색하고 구도를 잡은 뒤 셔터를 누르고, 여러 차례의 인화와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프린트를 선정하며, 이 프린트의 촬영이 이루어진 지명, 기관, 년도, 동일 장소일 경우 로마자로 그 순서만을 기입하는 등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이와 더불어 이미지와 프레임 사이에 여백을 넣어 현재 공간과 유리 너머의 공간을 분리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연결시킴으로써 관객은 인간, 시간, 역사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의 초상을 마주하게 된다.

칸디다 회퍼는 1944년 베를린 근교 에베르스발데에서 태어났다. 이미 유년기에 사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그는 19세에 광고, 건축, 패션 사진을 다루는 사진 아틀리에에서 견습 생활을 했다. 1964년 쾰른 베르크슐레(Werkschule)에서 예술과 사진을 전공한 후에는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하였다. 1973년 당시 유럽 내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기관이었던 뒤셀도르프 아카데미(Kunstakademie Düsseldorf) 영화과에서 올레 존(Ole John)에게 수학하였다. 1976년 베르트 베허(Bernd Becher)가 개설한 사진학과에 입학하여 1982년에 졸업 전까지 "베허 학파" 1세대로 일컬어지는 악셀 휘테(Axel Hütte, 1976-81), 토마스 스트루트(Thomas Struth, 1976-80), 토마스 루프(Thomas Ruff, 1978-85), 타타 론크홀츠(Tata Ronkholz, 1978-85), 페트라 분더리히(Petra Wunderlich, 1985-88), 안드레아스 구르스키(Andreas Gursky, 1981-87) 등과 함께 수학하였다.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갤러리 전시를 가졌던 칸디다 회퍼는 다양한 공적 기관의 공간들은 물론 온 카와라(On Kawara)의 회화 및 로댕의 칼레의 시민(12, The Burghers of Calais) 12개 에디션과 같은 특정 피사체가 소재한 공간, 헤르조그 앤 드 뫼롱(Herzog & de Meuron)이 설계한 건축물 내, 외부를 담으며 작업의 반경을 넓혀왔다. 전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수많은 개인전과 그룹전을 선보인 칸디다 회퍼는 2002년 제 11회 카셀 도큐멘타, 2003년 제 50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마틴 키펜베르거(Martin Kippenberger)와 공동으로 독일관을 대표했으며, 2018년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의 사진공로상(Outstanding Contribution to Photography)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소장처로는 프랑스국립도서관,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루벨 컬렉션, 프리 컬렉션, 풍피두센터, 루트비히 미술관, 스톡홀름 근대미술관, 레이나소피아국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작가는 현재 쾰른에 거주하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는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미지는 홍보목적에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 ID: kukjegallery | PW: kukje

**KUKJE GALLERY** | COMMUNICATIONS  
T +82 2 3210 9821 | press@kukjegallery.com

##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03053 KOREA  
T + 82 2 735 8449 | F + 82 2 733 4879 | WWW.KUKJEGALLERY.COM

칸디다 회퍼(Candida Höfer) 개인전 《Spaces of Enlightenment》개최



칸디다 회퍼 (b.1944)

<Düsseldorfer Schauspielhaus I 1997>

C-print

48.2 x 47 cm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칸디다 회퍼 (b.1944)

<BNF Paris VI 1998>

C-print

88 x 88 cm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칸디다 회퍼 (b.1944)**

<Van Abbemuseum Eindhoven VI 2003>

C-print

103.8 x 88 cm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칸디다 회퍼 (b.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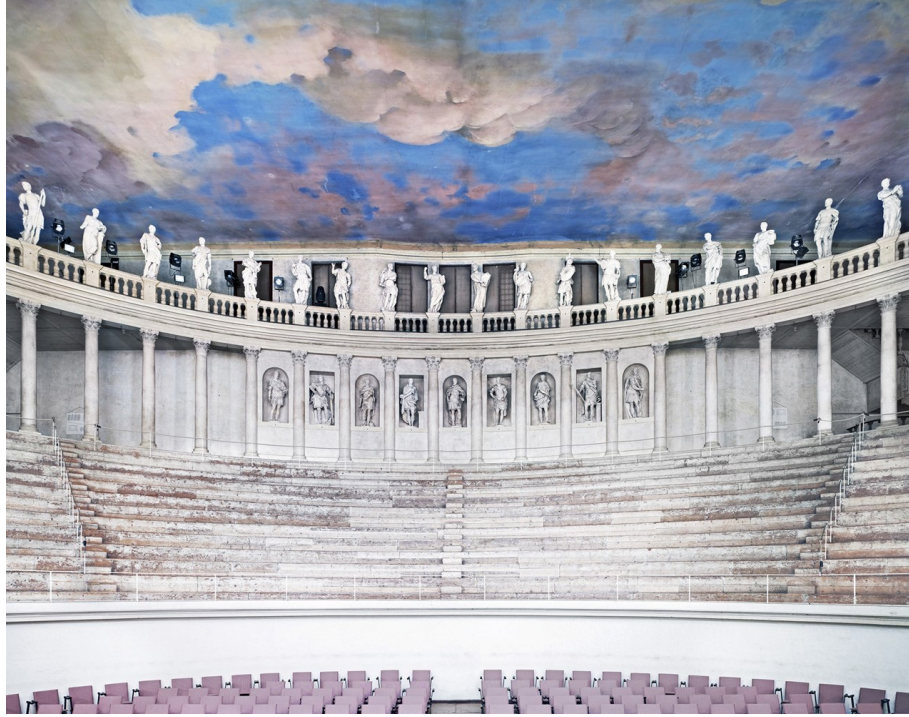
<Teatro Cervantes Buenos Aires I 2006>

C-print

184 x 244 cm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칸디다 회퍼 (b.1944)

<Teatro Olimpico Vicenza I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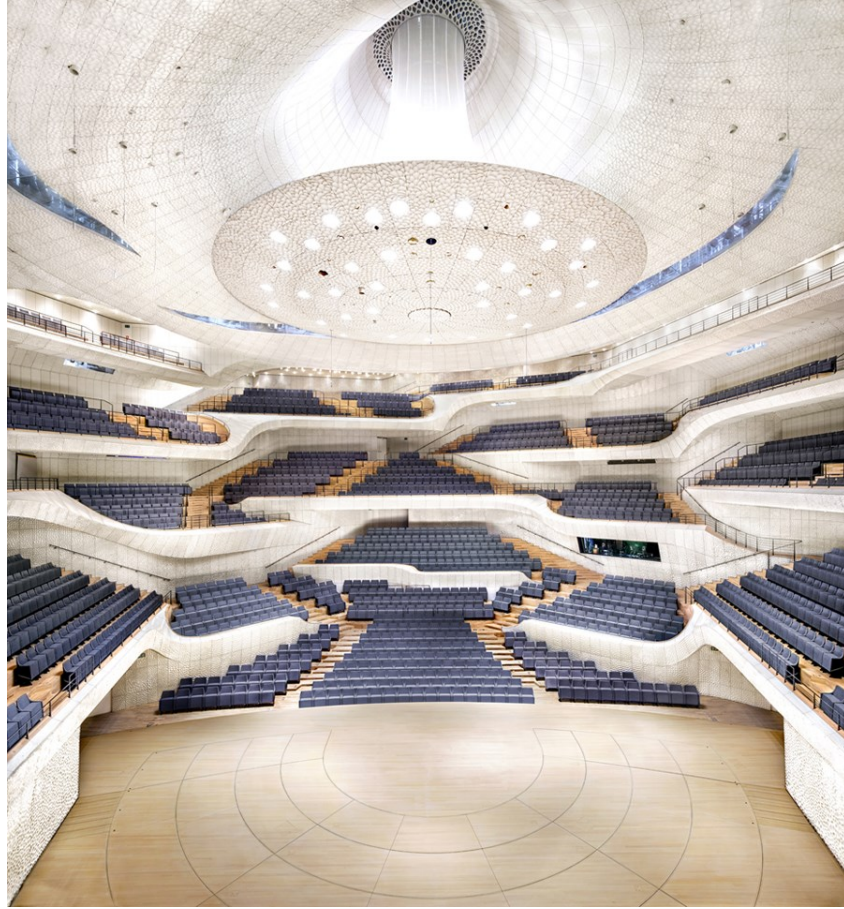
C-print

184 x 222 cm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칸디다 회퍼 (b.1944)

<Elbphilharmonie Hamburg Herzog & de Meuron Hamburg II 2016>

C-print

184 x 174 cm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